

인간 본래의 모습, 감로(甘露)를 찾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구세주가 감로이슬성신이 되는 분신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분신은 승리의 영이예요. 이제 그대로 마귀한테 지는 그런 약한 영이 아니예요.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전부 소멸시켜버리고 없앨 수 있는 강한 영이예요. 이 감로의 정체, 감로에 대한 성품을 세밀히 설명한 자는 6천년 인류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로의 주인공이라야 이것을 아는 거지 주인공이 아니면 감로가 구세주의 분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감로가 내리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주면서 말을 해도 그래도 바로 그 감로가 하나의 은혜인양, 보통 은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감로이슬성신이 이 사람의 분신인고로 감로 자체가 구세주예요. 감로 자체가 영생이예요. 영생체예요.”

2001년 10월 21일 구세주님의 말씀



▲ '말씀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둥이라' -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0절

우주는 인류가 고통으로 목말라 하고 있을 때마다 단 비와도 같은 존재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 겉보기에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진정 하늘이 인간들에게 내려준 축복이었다. 그들의 말은 인류에게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들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에게 살아갈 힘이 되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리고 결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려준 그들. 비록 그들이 존재했던 장소와 언어는 다름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동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모든 종교와 학문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심점이자 모든 만물을 변화시킬 주체인 열반광(涅槃光), 즉 감로(甘露)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감로(甘露)를 먹으면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단지 미완의 감로(?)를 조금 맛본 정도일 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神) 그 자체인 감로(甘露)를 온전히 거둬내지도, 그 감로를 자유자재로 운용하지 못했다. 진정 열반에 든 자가 없었던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빛인 감로’. 우리는 지금 그 감로를 찾았던 사람들을 따라가 보려 한다. 구세주의 본체인 감로가 만민에게 그 모습을 천연히 드러낸 이 시대에, 다시 그 감로가 지나온 길을 따라 인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려는 것이다.

天地相合以降甘露-천지상합이강감로는 감로(甘露)를 찾아라. 먼저 화엄경 26권을 보자. 一念分身遍十方 甘露雨滅煩惱 - 한 생각하는 순간에 분신으로 우주에 가득차서 감로의 비를 내리시니 중생들의 번뇌가 소멸된다.”

그리고 대반열반경 5권 사상품(四相品)에는 감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是處無死即是甘露 是甘露者即眞解脫 - “죽음이 없으니 이것이 감로요, 감로를 내리는 자가 바로 진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해탈한 자이다.”

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저술된 것이 <도덕경>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는 도와 덕의 의미를 총 81장 5천여 자로 해설했는데 바로 그 <도덕경(道德經)> 32장 '성덕(聖德)' 편에는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다.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天地相合以降甘露 民莫之令以自均

“제후와 제왕이 만약 능히 이 도(道)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감로가 내리며,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진리(眞理)의 감로(甘露) 라마 크리슈나

라마 크리슈나는 인도에서 신의 화신(化身)으로 추앙받으며 힌두의 대성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생활은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고 격렬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벵갈의 이 가난한 농부가 그들 중 한 명이었다.

“밭이 꽃잎의 밖에 있을 때에는 왕왕 소리를 낸다. 그러나 꽃 속으로 들어가 꽃가루를 때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진리(眞理)의 감로(甘露)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교리나 이론에 대한 논쟁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를 체험하게 되면 그는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何人得雨能人活-하인득우능인활 수운(水雲) 최제우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1824~1864)선생은 득도(得道)한 뒤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자 가운데서 기도를 하여 이긴자가 돼서 왕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뜻이다. 따라서 사만은 해와 이긴자를 가리킨다. 또 사천은 사(四)자가 땅의 완전수요 일천(千)자는 사람 인(人)변에 십(十)자이니가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고로 죄를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완성자니가 둘째 아담을 가리킨 것이다.

두 번째로 13숫자와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 최제우의 용담유사(龍潭遺詞)에는 열석자(十之數)가 지극하면 만권시(萬卷詩書) 무엇하리 하였으니 이는 장차 열석자인 72공 목운(木運)이 출현하면 만권시(萬卷詩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자 가운데서 기도를 하여 이긴자가 돼서 왕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뜻이다. 따라서 사만은 해와 이긴자를 가리킨다. 또 사천은 사(四)자가 땅의 완전수요 일천(千)자는 사람 인(人)변에 십(十)자이니가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고로 죄를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완성자니가 둘째 아담을 가리킨 것이다.

두 번째로 13숫자와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 최제우의 용담유사(龍潭遺詞)에는 열석자(十之數)가 지극하면 만권시(萬卷詩書) 무엇하리 하였으니 이는 장차 열석자인 72공 목운(木運)이 출현하면 만권시(萬卷詩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자 가운데서 기도를 하여 이긴자가 돼서 왕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뜻이다. 따라서 사만은 해와 이긴자를 가리킨다. 또 사천은 사(四)자가 땅의 완전수요 일천(千)자는 사람 인(人)변에 십(十)자이니가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고로 죄를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완성자니가 둘째 아담을 가리킨 것이다.

두 번째로 13숫자와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 최제우의 용담유사(龍潭遺詞)에는 열석자(十之數)가 지극하면 만권시(萬卷詩書) 무엇하리 하였으니 이는 장차 열석자인 72공 목운(木運)이 출현하면 만권시(萬卷詩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의 도를 천도(天道)라 하고 농민, 천민, 유생에 이르는 광범한 계층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가 깨친 사상을 글로 남겼는데 이때 한문으로 지은 것이 <동경대전>이고 한글로 지은 것이 <용담유사>이다.

다음은 <동경대전>의 첫 장인 '포덕문(布德文)'의 일부분이다. 愚夫愚民은 未知雨露之澤하고 知其無爲而化矣러니 - “어리석은 자들이 비와 이슬(甘露)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無爲)로 일하니...” 그리고 ‘우음(偶吟)’에서 그는 이렇게 읊조린다. 何人得雨能人活 - “누가 능히 비(甘露)를 얻어 사람을 살릴 것인가..” 라고

법(法)의 비(雨)와 이슬(露) 증산(甞山) 강일순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증산교의 창시자인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24세에 동학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혁명 때 봉기를 반대하고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교(興味教)’를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0> “하나님께 집중하여 충성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출세를 하려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야 성공을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성공하게 되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 이 영생의 역사에서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6000년의 길고 긴 기반을 쌓고 있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조직을 부수고 완전히 영생의 역사로 뒤집어엮는 이 역사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일 초 일 초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충성을 해 나갈 때에 결과적으로 이기신 하나님이 이긴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마귀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엮는 것이다.*

이기는 삶

박쥐 인생

‘편복지역(蝙蝠之役) 또는 ‘편복불참(蝙蝠不參)’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편복(蝙蝠)은 박쥐를 의미하는 한자다. 박쥐의 구실, 혹은 박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헌설화는 『기문』과 『순오지』에 실려 있는데, 『순오지』에는 ‘박쥐구실’이라는 속담을 풀이하는 형태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설화가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새들끼리 봉황을 축하하는 잔치에 박쥐만 빠졌다. 봉황이 박쥐를 불러놓고 “네가 내 밑에 있으면서 어찌 이리 거만할 수가 있느냐?”고 꾸짖었더니, 박쥐가 “나는 네발 가진 짐승인데 너 같은 새와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이나?”고 하였다. 그 뒤 기린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 네발짐승들이 다 모였으나 박쥐만이 오지 않았다. 기린이 박쥐를 불러 또 꾸짖었다. 그러자 박쥐는 “나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네발짐승들의 잔치와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이나?”고 하면서 날개를 펼쳐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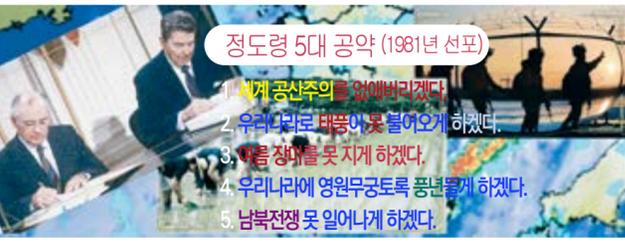
날짐승들이 모인 봉황의 잔치에 박쥐는 들짐승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으며 들짐승인 기린의 잔치에는 날짐승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이익과 편익에 따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가 하는 기회주의적인 만들었다. 그 후 9년간 흥미교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그가 39세에 병사(病死)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증산교’로 바뀌었다. 다음은 《中和經(중화경)》에 ‘미륵출세편’의 기록이다. 佛日出時 降法雨露 世間眼目 今茲始開 有緣者 皆悉聞知 好道遵佛 佛成人事 - “생미륵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연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그 설법을 자세히 듣고 깨달을 것이니, 생미륵이 사람들을 반드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리라.”*

그들은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박쥐 이야기는 설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박쥐의 성격이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박쥐의 생김새와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박쥐 같은 인생을 사는 한심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자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과거 모 정치인의 예를 보면, 자신의 대권을 위하여 A당에 붙었다가 대권후보 경선에서 패하자, 탈당하여 B당으로 당적을 옮겨 다시 대권후보에 도전하는 작태는 정말 구역질 나는 추잡한 모습이었다. 그런 지조 없는 행동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대권을 하고 싶을까?

한편 회의 시간이나 논쟁 시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소 책임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은 바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니,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니, 장비가 노후되었다는니,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는니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 책임을 전가한다.

회의 시간에는 가장 적극적인 듯 자기주장을 펼쳐 보이지만 말로만 떠벌리는 행동 없는 그 태도는 영락없는 박쥐 인생이다. 쫓대 없고 지조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알팍한 이익만 추구하는 박쥐 인생이 되지 말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좋은 매너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한 시도 잊지 말자.*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농작을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정도령≫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 44년이 지났을 때, 21세기 초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한 “風雲造化任意用之(풍운조화임의용지)” 갖추고 계시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가 하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농작을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가지고 계시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144와 13 그리고 8숫자에 담긴 의미

첫 번째로 144숫자와 관련된 내용을 격암유록 말문론과 성경에서 찾아본다.

十二神人 各率神兵 當數一先定 此數一四四之全田之數 (십이신인 각률신병 당수일이선정 차수일사사지전전지수) 해설: 하나님을 모신 두 신인이 먼저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격암 첫 번째 정도령(5도72공) 일(一)과 두 번째 정도령(여인 한 분은 밀실에 숨김) 사(四)가 먼저 나와서 역사하여 마지막 세 번째 정도령(6도81공) 사(四)가 합하여 곧 지책(坤之策) 144수를 이루어 완성(全田)

의 정도령(마귀를 이기신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일사사(一四四)의 3수를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십사만 사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144=삼위일체 하나님)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14:4) 십사만 사천의 의인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것으로서 해석하면